

한교총, 저출산 극복 위한 국민포럼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최하는 '출산을 0.98초크,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월 3일 오후 2:30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출산율이 0.98로 발표되고, 한민족의 존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존중과 결혼과 육아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정부 및 사회단체와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한교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방안에 제를 맞추는 동시에 '행복한 결혼과 만족스러운 육아'가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을 좀 더 강조해서 실효적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시대상황이 급변하면서,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 정부 정책 입안과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고, 사회, 종교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청취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서 성공적인 교회와 대안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활동 상황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관부서인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결혼과 육아는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고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보전의 방식으로 출산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셨다. 출산은 고

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의미를 갖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진보해도 출산없는 다음 세대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인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결혼과 가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출산은 인간이 어느 시기에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생 중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육아하는 힘든 일을 통해 생의 기쁨과 보람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포럼을 진행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전체 행사 1부 개회식은 사회/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개회사/소강석 목사(사회정책위원장, 새에덴교회), 환영사/립형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인사/김상희 의원(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축사/이명수 국회의원(복지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바이올리니

스트 여근하 교수의 축하연주와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다.

주 행사인 2부 전문가 포럼은 신광식 한교총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조홍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조연설과, 이수훈 목사(성공사례, 담정동일교회 담임목사),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아영 국민일보 기자(저출산기획취재팀), 장삼열 교사(꿈의학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여 발제와 패널로 참여한다.

한국 내 주요 30개 교단이 참여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이번 포럼에 앞서 생명존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며 법외교회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국민일보와 MOU를 체결했으며 이미 10여 개의 건강하고 신앙이 있는 사회, 문화, 종교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호환, 연대하고 있다. 한교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며, 회원 교단들을 통해 전국교회가 공유할 예정이다.



영산수련원에서 제45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최

5월 29~31일...세계 550여 선교사들 참여

제45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오는 29일~31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산수련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5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

교사수련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위임목사의 강연 및 성령대회를 비롯 이슬람(유해석 선교사) 및 신천지(신현욱 목사)에 대한 특강, 북미지역의 한국인 자녀세대에 대한 복음전도 방안과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지역에서의 선교방안, 선교사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다루는 사례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이번에 귀국한 선교사들은 체류하는 기간 동안 후원 교회들을 방문해 선교보고를 하고 건강검진 등 국내에서의 활동을 마친 뒤 선교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은 선교사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영적 재충전의 계기로, 침체된 국내 교회들에게는 선교사역 보고의 자리 등을 통해 신앙의 부흥은 물론 선교 동원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64개 국가에 699명(선교사 가족 제외, 2019년 2월 기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 선교를 지원하고자 12개 국가에 17개의 신학교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계종 종교평화

논평

종교적 편향을 예의로 둔갑시켜 강요하지 말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에 지방의 한 사찰의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과 관불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교계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연일 못매를 맞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자 보도자료에서 황 대표가 합장과 관불 의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을 존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는 개인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 대표 개인을 위해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불교계와 일부 언론이 황 대표가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판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불교국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 종교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런 편향적 비판의 못매를 맞아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합장은 엄연한 불교의식이 아니다. 그런데 불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의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목적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해 시늉을 하는 것이지 이를 진정한 예의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황 대표는 불교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공손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있지 않았다고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조계종 종교평화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 개인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 대표 개인을 위해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이 황 대표가 불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황 대표는 비록 자신이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합장을 안했다고 남(불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는 것은 반대로 황 대표가 신봉하는 기독교에 대해 불교가 오히려 무례히 행하는 격이 아니겠는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독교 신자인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모두 합장을 했는데 황 대표가 합장을 안했으니 잘못했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 의도성을 가진 편향적 보도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고유 영역에 속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선례라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종교국가이다. 그런데 이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제10차 대표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교국가가 되었나 하는 착각을 넘어 오만하게까지 느껴진다. 신앙을 예의로 격하해 이런 식의 도를 넘는 비판을 쏟아낸다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조차 불교는 과연 얼마나 예의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계종이 황 대표에게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비호듯 훈계를 하기 전에 정치인인 누구든 다종교인이 합장을 안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선택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합장은 불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불교 의식인 것으로 타종교인은 구지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에 화합과 통합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위원회의 제10차 대표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교국가가 되었나 하는 착각을 넘어 오만하게까지 느껴진다. 신앙을 예의로 격하해 이런 식의 도를 넘는 비판을 쏟아낸다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조차 불교는 과연 얼마나 예의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계종이 황 대표에게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비호듯 훈계를 하기 전에 정치인인 누구든 다종교인이 합장을 안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선택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합장은 불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불교 의식인 것으로 타종교인은 구지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에 화합과 통합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한국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소아적 편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기보다 종교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균형과 조화, 질서 안에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앞장 서는 더욱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9.5.2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창립 36주년기념

http://www.mokpojuan.com

부 목사 :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운
전 도 사 : 추정희 송선택 전공소아이(베트남:신학유학)
파송선교사 :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송영관(태국) 최문정(태국)
김미경(아프리카(00국))

시무장로 :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동장로 : 이병화
은퇴장로 : 고재련 원복희 장광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향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

수원헤브론교회 담임 조 정 환 목사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장/미래목회경영재단 대표



지금의 한국은 지금 자살을 세계 1위, 이혼을 1.2위를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IMF시대 이후 청소년의 비행과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산업화가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현대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구라과가 100년 전 산업화되기 전에는 인구의 95%의 신자였는데 산업화 물결로 100년 후 15%로 줄어들고 현재의 남은 교인은 평균 연령 67세로 잔존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학교 교육이 유일한 대안이다.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만 시킨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 알콜과 마약, 강도, 절도, 음행, 자살 등 많은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교육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정, 학교, 교회 세 군데를 주셨는데 오늘날 가정에서 말씀교육을 소홀히 하

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보루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뿐이다. 교회학교교육이 마지막 희망이며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내고 꿈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회학교를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한국의 교회는 서구 교회들처럼 고령화되어 노인들만 남아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참고나술집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을 등한시 한다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학교교육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은 입시교육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다. 여섯 명의 자녀 모두를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시키고 뛰어난 인재들로 길러낸 전혜성 박사가 쓴 책인데, 지난 100년간 미국에 가장 공헌한 100인의 한인에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선정될 정도로 전 박사의 가정은 훌륭한

가정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 가정의 독특한 원칙이 하나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혜성 박사 가정의 아침 식사 시간은 새벽 6시 30분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가정의 불문율이었다.

아이들이 밤새 공부를 했어도 예외가 없었다. 아침 식사만큼은 반드시 참석해야 했는데, 아침 식사 때 가족들은 학업, 신앙 문제, 인생 고민과 시사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식탁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신앙과 인생을 배우고 부지런함을 배웠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막내아들(고정주)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너는 50%가 한국인이고 50%가 미국인이나?” 그때 막내는 “나는 100%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2002년 영국 엘스터대와 핀란드 헬싱키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때 세계 1위가 IQ 107의 홍콩이었고, 2위가 IQ 106의 한국, 3위가 IQ 105의 일본과 북한이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IQ 98로 19위였고, 이스라엘은 IQ 95로 26위였고 불과하였다. IQ가 우리보다 10이상 떨어지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의 정치·경제·군사적인 부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민족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어린이, 자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신6:7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듣지 길에 행할 때에 듣지 누웠을 때에 듣지 일어날 때에 듣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신11:18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31:19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등등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시편 78:5~6 “우리 열조에게 명하시라 저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신약에서도 자녀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다. 엡 6:4 “아비들이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딤후 4:11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딤후 4:13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등 곳곳에서 교육을 명하고 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랍비들이었다. 교회교육은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렸을 때의 습관, 환경, 행동은 평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미국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미국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교회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민족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어린이, 자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신6:7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듣지 길에 행할 때에 듣지 누웠을 때에 듣지 일어날 때에 듣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신11:18에



베이비박스에 아기 놓고 가면 3분간 문 안 열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지난 21일 베이비박스 운영 10년 만에 더 크고 안락하게 제작되어 교체했다. 이 목사는 “아기가 놓고 가면 3분간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물론 안에서는 바로 열 수 있다. 해외에서 아기를 몰래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를 교체했다. 입양시설로도 보내지지 않고 버려지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베이비박스는 ‘영아 임시 보호함’을 말한다.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들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돼 기쁘다. 이곳에 놓는 모든 아기가 존귀한 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한유 대표는 “앞으로 베이비박스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와서 누구나 아기를 사랑으로

초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육담당자는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담사는 아기 부모를 만나 상담을 한다. 새 베이비박스는 기존 것보다 안전과 보호, 알람 기능이 더 좋아졌다. 특히 디자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타서를 한유사랑 대표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가장 존귀한 자” 그리스도의 탄생 말구유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새로운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들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돼 기쁘다. 이곳에 놓는 모든 아기가 존귀한 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한유 대표는 “앞으로 베이비박스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와서 누구나 아기를 사랑으로

(아기옷, 분유, 기저귀, 생필품, 쌀 등)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가 없는 출산예정인 미혼모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관(생활관)제공과 무료 출산도 지원 중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아동과 미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 목사는 “법 인설립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만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조한 아기만 1578명에 달해

베이비박스 운영 10년만에 새롭고 안락하게 제작되어 교체되어

관련 단체는 영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목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많은 아기가 유기돼 죽었을 것”이라며 “빛줄을 달고 들어온 아기를 살리는 사역인데, 어떻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국가가 할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라며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리지 않는 날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기와 미혼모를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신 목사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모사전송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j.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j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 07837(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방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574-657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j@naver.com



사)한기보험, 제10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가져

동성애퀴어축제 및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등을 철회하라 촉구

주제 :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험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에서 지난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본부 비전센터에서 진행되어 1부 예배, 2부 특강, 3부 제10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순으로 뜨겁게 개최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합동제일총회 총무 김 건 목사(합동)가 진행을 맡았으며, 신한철 목사(삼일교회)가 기도를, 성경봉독(단14:18)에 문해숙 목사(합동보수총회), 특송에 김주향 찬양사역자가 찬양했으며,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선우 목사가 헌금을 위한 찬양과, 임력수 목사(오순절 총회)가 헌금 기도를,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가 있는 후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설교를 맡은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 강사 조성근 목사는 (성경원형회복 위원장) "십계명"을 주제로 강의를 나섰다. 이어진 제3부 제10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는 오



순절성회 총무 오현관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미스바회개 기도회를 위하여 진공열 목사(중부지방회), 나라와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을 위하여 김성립 목사(예장제자총회 총무), 민족 복음화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홍정중 목사(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 우리나라 다문화 복음화를 위하여 김주향 목사(선교사), 동성에 헌법 개정 법제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박승주 목사(작은교회연합 회장), 한기보험과 각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김은임 목사

(예장진리총회) 등이 각각 특별기도회를 한 후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의 축도로 제10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오는 1일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를 철저히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 42개 교단이 연합한 한기보험은 동성애 확산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반성경적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한홍교 대표회장은 동성애는 WCC와 WEA를 적극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교단 연합체임을 밝히고, 국내 보수교단들이 모여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신앙을 회복하는 성경원형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계속되는 미스바기도회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경향교회 설립 제46주년 기념 임직예배 드려

장로 장립 11명, 집사 장립 24명, 집사 취임 3명, 권사 취임 91명, 명예권사 취임 8명 등 137명 임직 거행

경향교회 설립 제46주년 기념 임직예배가 지난 5월 18일(토) 오전 11시부터 제1성전에서 있었다. 교단의 많은 내빈들과 임직자가족, 경향의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먼저 예배에 서기현 담임목사의 사회, 부노회장 김영곤 목사(창원시민교회)의 기도, 영서시찰장 이진성 목사(창원해광교회)의 성경봉독(요 12장 23-26), 호산나, 할렐루야연합찬양대의 찬양, 서머나교회 홍복두 원로목사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먼저 안수위원장 서기현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와 본 교회 성도들의 서약을 받은

뒤, 장로 안수기도 및 악수례, 집사 안수기도 및 악수례, 집사 취임 기도, 권사 취임 기도, 명예권사 취임 기도 에 이어 안수위원장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아울러 서상일 목사(성일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서울시찰장 이장원 목사(시온성교회)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경향여성총회장 이은희 목사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후 이상철 장로의 인사와 영상 광고를 끝으로 경향교회 원로 석원태 목사가 축도하고 마쳤다. 한편, 임직식과 관련 서기현 담임목사는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의 말은 소중한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고, 특히 경향의 2019년을 맞아 5대 실천 목표를 위해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하성 제68차 정기총회 개최 "동성애 반대 결의"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교단 통합 이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순절 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기하성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 영산수원원에서 802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을 넓히는 총회'를 주제로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하성은 지난해 11월 구 기하성 여의도총회와 서대문총회 통합을 갖고 임원은 당시 통합총회에서 선출했다.

이날 개최예배에서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성령의 역사'를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교단으로서 하나가 되자"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를 닮아가는 역사"라



며 "어떤 경우도 (교단) 분열과 다툼은 안 된다. 이는 미국의 역사다. 초심으로 돌아가 성령운동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총회장의 메시지는 교단 통합 이후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 모임 때마다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오순절 교단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회개, 성령충만, 하나 됨, 고소·고발 없는 거룩한 총회 등이 키워드였다.

개회예배 이후 안전 토의에서 주요 안건은 지난해 통합 총회에서 결의해 보완한 헌법 인준 건이며, 총대들은 이를 인준했다. 다만 지역총회법 안전에 대해서는 2년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지역총회법

은 미국 하나님의성회 법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총회가 주요 사항만 결의하고 나머지 행정은 지역총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인준 헌법에는 담임목사 정년 75세(구 서대문총 4년간 미적용), 교단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총대들은 또 연금재단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연금공제회 이사회에 이를 권고기로 했다.

총대들은 긴급 상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최근 대만의 23만 기독교인이 750만 명에게 동성결혼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기하성 총회부터 동성결혼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번 기하성 제68차 정기총회는 지난 21일 오전 폐회예배를 끝으로 성료됐다.

사도영성 아카데미 제15차 개강예배 드려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



사도영성 아카데미 확장 총회장은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신념을 갖고 지난 5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9시까지 개강예배와 강의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 1,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1부 개강예배에 확장 총회장은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 1부 이론과 2부 실제, 3부 성경적조직신학 등 12과목을 주제로 이번 학기 강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한국경북총회 증경회장 허식 목사의 축사, 정기남 목사의 격려사, 이창식 목사(한국경북총회 총회장) 축도 순으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이번 사도영성 아카데미 확장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파트 연구"라는 과목으로 지난 23일(목) 오후 6시 30분 첫 강의를 시작으로 5월 28일(화), 5월 30일(목)까지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사도영성 아카데미 확장 총회장은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 1부 이론과 2부 실제, 3부 성경적조직신학 등 12과목을 주제로 이번 학기 강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uruen Sol Presbyterian Church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uangju to C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부목사: 김미경
합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안종기, 허성준, 함동호
합동장로: 이상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 2부 9:00 /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철야: 저녁 8:00

광주시 광산구 수원로 11번안길 47.
(영무예다음 2차 후문 앞 수원 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합동조합(상담 및 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께서 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되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움을 빛과 기쁨으로 따르우려 하십니다. (시 30:11)

일방부흥선교의회총회
지저스타임즈사장
JTNTV 칼라리스트
CP방송수석칼라리스트
KBS방송칼라리스트
CBSTV 칼라리스트
HP: 010-823-7779
교화: 02)31-1232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JINWOO

예배안내
대예배 부오전 9: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 저녁 7: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0:00
토요일예배 오후 10:00
신약기도회 매일 오후 10:00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 대학부 오후 2:30, 8:00
중고등부 오후 2:30분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 (장암동)
Tel: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 번성표어:
평안하여 듣든지 가는 교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 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화: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38@harma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춧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계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 새벽예배 AM 5:30
주일 오전예배 AM 9:00
주일 낮 예배 AM 11:00
새벽예배 화-금 AM 5:00

주일 저녁예배 PM 2:00
남전도회 구역예배 PM 5:00
청년회예배 PM 6:00
수요예배 PM 7:30분
이전도회 구역예배 PM 7:00
금요철야예배 PM 9:00
학신회예배 PM 5:00

담임목사 장한국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내손동, 대림프라자(고호5))
Tel: (031)424-7612 / 010-4436-7060

| 칼럼 |

■ 靑松 건강칼럼 (692) 망(Roman)이나, 노망(Dementia)이나

치매(癡呆)친화 사회

지난달 4월 초에 이순재와 정영숙 등이 주연한 로맨스 영화 <로망>이 개봉되었다. 이창근 감독의 이 영화는 결혼 45년차인 75세 조남봉(이순재 분)과 71세 이매자(정영숙 분)는 동반 치매(癡呆)에 걸린 노부부의 삶의 애환이 스며있으며, 고통과 치매사회를 담담히 직시하고 사랑이라는 파스한 솔루션(solution)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남봉은 매일 라디오를 듣는 택시 운전기사이며, 매자는 가정주부로서 어느 부부와 같이 평범하다. 백수이자 박사 출신인 아들, 학원강사로 일하는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발랄하게 보여주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치매환자들과 쌓았던 벽을 허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니저로 모든 것을 총괄한 송은이는 "살면서 체득해오신 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제가 선불렀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2017만원이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14조6000억원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치매에 의한 사망자는 총 9291명으로 남성 2699명, 여성 6592명으로 나타났다. 치매 사망률은 여성 10만명당 25.7명, 남성은 10.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높았다.

여성의 치매 사망률이 크게 높은 이유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다.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학력(學歷)은 치매의 보호인자로 작용하는데,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치매와 치매로 인한 사망위험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매인(癡呆人) 71만 시대를 맞아 <치매인 워드, DFC 행사>가 지난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렸다. 'DFC'란 'Dementia Friendly Society'의 약자로 '치매 친화 사회'를 뜻하는 말이다. 이 행사는 한국치매협회(Korean Association for Dementia)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서울형태이케어센터, 치매 길벗집단, 고령자치매작업치료사회, 치매 환자 가족 등이 참여했다.

청계천광장 현장에서는 치매환자와 함께 팔찌,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했으며, 치매 상식 등을 맞추는 퀴즈쇼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치매어르신 기피와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친숙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깊게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배려의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공식 문서에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병명 대신 인지증(認知症)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도 '인지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치매'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경우는 적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2025년에는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런 치매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전 부처가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치매 환자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 지역'을 만드는 정책이다.

일본 NHK 방송이 2017년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틀간 '특별식당'을 열었다. '치매 환자에게 관용을 베풀며 함께 살자'는 행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혜택을 주는 '치매 카페'도 전국에 약 5천여 개 있으며, 치매 환자를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 '치매 스포터(spotter)'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단체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식당(Restaurant of Mistaken Orders)'은 '치매 환자가 보통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취지에서 부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일본 도쿄 도심 후생노동성 식당에서 65-91세의 치매 환자 7명이 지난 3월 4일부터 이틀간 손님을 안내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전달했다. 행사 취지에 공감한 손님들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오더라도 불평없이 웃으며 식재했다고 한다. 식당 특별종업원(치매 환자)들이 잘못 알아들은 비율은 37%를 차지했으나, 손님들 99%가 '괜찮다'고 응답했다. 또한 손님 중 95%가 '치매 환자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KBS-1TV를 통해 <KBS 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이 8월 9일과 16일에 방송되었다. '치매'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내용은 이연복 총괄셰프와 개구무연 송은이가 매니저가 되어 경증치매 어르신 5명과 이틀간 음식점을 운영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치매 어르신들의 구구절절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

하는 모습을 발랄하게 보여주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치매환자들과 쌓았던 벽을 허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니저로 모든 것을 총괄한 송은이는 "살면서 체득해오신 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제가 선불렀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건강증(健忘症), 경도인지장애(輕度認知障礙), 치매(癡呆)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 후에 식탁 주인이 '손님, 계산 안 하셨어요'라고 말했다면 "깜박했네"하면 건강증, "내가 계산을 안 했나?"하면 경도인지장애,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해?"하면 치매인 경우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 기능과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를 말하며, 3분의 1 정도는 나중에 치매로 진행된다. 학습이나 운동 등 인지 기능 개선요법으로 기억장애를 현저히 줄이고, 치매 발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권장하는 <치매예방수칙 3.3.3>은 다음과 같다. 3권(飮:즐길 것)은 운동(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식사(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기), 독서(부지런히 읽고 쓰기)이며, 3금(禁:참을 것)은 절주(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신다), 금연(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뇌손상 예방(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이며, 3행(行:행길 것)은 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소통(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다), 치매 조기발견(매년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는다) 등이다.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플랜>은 청년기(靑年期)에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먹으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운동을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장년기(壯年期)에는 생활습관에서 오는 질병은 꾸준히 치료하며, 우울증은 적극 치료한다. 노년기(老年期)에는 매일매일 뇌신경을 자극하는 치매예방운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는다.

한국치매협회는 '치매는 예방가능한 질병입니다'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있다. 우리가 치매환자에게 "당신은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당신은 언제나 얼마든지 작은일이던 더한 큰일이던 해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난다면 '치매 친화 사회(Dementia Friendly Society)'를 조성할 수 있다.

스승의 은덕을 기리는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덕(恩德)을 기리는 스승의 날(5월 15일)에 즈음하여 오늘(5월 9일) 우리나라 보건분야 큰 스승이신 권이혁 선생님의 제자 20명이 모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은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동창회 합춘회관(合春會館) 2층에 위치한 중화 요리음식점 합춘원에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다. '합춘(合春)'은 창경궁의 동·서쪽 등에 설치되었던 궁궐 후원의 이름인 합춘원(合春苑)에서 유래하였으며, 지금까지 흔적이 남아있고, 규모로 보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경궁 동쪽(현 서울대 의과대학)에 있는 것이다.



▲ 스승의 은덕, 우강(又岡) 권이혁(權彝赫)先生

우강(又岡) 권이혁(權彝赫) 선생님은 1923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하시어 194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신 후 미국 미네소타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영득하셨다. 1948년 10월 서울농대 수의학부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셨다. 1970년 서울대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학교 총장(1980-1983)을 역임하셨다.

권이혁 박사님은 문교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환경처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세계학술원 회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저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셨다. 저서에는 공중보건학, 또하나의 언덕 등 30여권이 있다.

임국환 박사(前 대한보건협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사은행사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이"로 시작되는 <스

승의 은혜>를 함참하면서 권이혁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이 준비한 꽃다발, 기념품 등을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렸다. 보건대학원 1회 졸업생인 정문식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보건대학원장 역임)는 보건대학원 졸업 60주년의 감회를 피력했으며, 주혜란 박사(아트민 종합건강검진센터 원장)는 권이혁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면서 추가를 했다. 권이혁 선생님은 보건대학원 제자들이 매년 주선하는 사은행사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2021년에 백수(白壽, 99세)를 맞이하시는 권이혁 선생님의 '백수잔치'에 즈음하여 선생님의 글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 기념문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필자가 발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인남 행복만성도 (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편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예 배 시 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리로 16길 11(신현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9 표어
성장하는교회
부흥하는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I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Midwest 가족의 밤, 예배와 음악회 열어

Midwest University 개교 33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난날 26일(목) 오후 4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Midwest 가족의 밤 1부 예배와 2부 설립자 총장 제임스 송 박사의 메시지 및 내빈소개, 3부 개교 32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Music Concert가 진행되었다.

1부 예배 Worship Service 총동문회 회계 배민아 박사(Midwest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오신중 박사(대구총교회)가 기도를, 김병래 박사(기도하는한방병원 원목)가 성경(롬8:28)봉독을, 문익환 교수(Midwest 교수)의 특송을, 총동문회장 박동호 목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 대표회장)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는 동영상 편집되어 지저스타임즈 JTNTV http://jtntv.kr에서 홈페이지 동영상 클리핑하면 자세히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어서 정근모 박사가 축사를, 총 동문회장 박동호 목사가 발전기금 작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자가 광고를, 김금운 목사(직전 회장, 마포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정근모 박사의 축사, 박동호 목사의 발전기금 작정



과 김금운 목사의 축도 등은 JTNTV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2부 설립자인 총장, Dr. James Song의 메시지 및 내빈소개가 진행되었다. 제임스 송 총장은 인사말씀을 전하고 학교 근황을 설명하

면서 학과신설 :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박사, 정치 리더십,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국제항공리더십 Ph.D.in Leadership, MB, MM, DMA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State of Missouri Ambassador 미주리주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한승호 대표, 에스더 한, Honorary Citizen City of Wentzville, Missouri, USA, Mayor, Nick Guccione 미국명예 시민증 수여, 엄세천 박사 교수 임명장 및 Name Tags 국경영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이영행 교수, 이태광 교수, 이윤주 교수, 내빈과 대학별 교수 및 학생을 소개했다.

이어서 고가제창(작사 전희준 박사, 작곡 박재훈 박사)은 김충 박사의 지휘로 진행되었으며, 제3부는 김충 박사(총무)의 사회로 Midwest 개교 32주년기념 축하음악회 Music Concert, 4부 만찬을 위한 유육 교수(Midwest Alumni)의 지도 순으로 Midwest 가족의 밤, Midwest University 개교 33주년 기념 축하음악회가 막을 내렸다.

예장총회(대신) 총회장 간담회

미주 예장총회(대신) 발전 위해 협력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총회장 안태준 목사 일행이 미주 지역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민한인교회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1일(화) 오후 6시 엘에이 한인타운 한 중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태준 총회장은 "이민교회 사역이 얼마나 착박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 늘날의 미국은 오히려 영적 선교 지이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어려

운 곳에서 선교사적 사명으로 목 회를 하고 있는 대신 소속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 미주 지역 목회자들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여 더욱 더 활성화된 목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교 단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총회(대신) 남가주주 회(노회장 류달영 목사)에서는 안 태준 총회장 일행에게 제68지구 주회원 최석호 의원 명의의 감사 장을 전했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한교연 대표회장배 친선 불링대회가 5월28 일(화) 오전 10시에 인천 락온빌링장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열린다고 보고했다.

한교연 제8-4차 임원회

6월 한달간 전국기도원에서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 개최키로

6월11~12일 무창포 리조트에서 실행위 임시총회 겸 특별기도회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5월21일(화) 오전 11시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제8-4차 임원회를 열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한달동안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개회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는 모든 비방과 한탄의 말을 거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할 때"라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마냥 힘없고 연약해 보이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해 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독교는 고난을 밀거름으로 성장해 온 것을 절대로 잊어서도 회 피해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를 한국사회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을 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역설했다.

임원회는 한국교회 부흥 기도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전국적 기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와 연대해 비상 특별기도회를 전개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에 공동회장 산광준 목사(민족통일선교회회 대표)를 선



임했으며, 위원으로 신석범 목사와 조태규 목사를 임명했다.

추진위원장 산광준 목사는 이날 임원회에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도회는 1차로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오산 리기도원(경기), 한열산기도원(경기), 설화산기도원(충남), 군산 임마누엘수양관(전북), 안성 베데스 다기도원(경기), 돌소리수양관(전북), 예바다기도원(충북), 주암산 수양관(경북), 세종 임마누엘기도원(충남), 용인 성산수양관(경기), 논산 민복기도원(충남) 등 전국 20여 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달간 특별기도회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7월1일에는 오산리기도원에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2,3,4

부 집회를 한교연이 전적으로 맡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비롯, 임원과 회원교단 부흥강사를 단상에 세워 특별기도회와 집회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전국 기도원 중심의 비상 특별기도회와 함께 오는 6월 11~12일 충남 무창포 비체펠리스 리조트에서 제8-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와 함께 비상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 회원 가입을 신성한 사단법인 소망의샘터(대표 이강욱 장로), 세계 기도원총연합회(대표 김명식 목사), 사단법인 미션그룹센텀(대표 김종택 목사), 재단법인 국제복지 선교협회(대표 이완순 목사) 등 4

개 단체에 대한 가입실사위원회(위원장 박남수 목사), 바른신앙수 호위원회(위원장 정철욱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신규 가입 4개 단체 중에 보다 세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전까지 보완해 가입을 최종 인준하기로 했다. 또한 분회 가입을 타진 중에 있는 몇 개 교단에 대해서도 가입실사위원회와 바른신앙수 호위원회를 거쳐 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추후에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지난 4월 1~10일 선교위원회(위원장 김바울 목사) 주관으로 인도 뱅갈루루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교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11월 인도 현지 목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선교위원회에 위임했다.

임원회는 회원 교단 중에 지난 5월20일 총회를 개최해 총회장과 임원을 새로 선출한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총회장 문성민 목사를 공동 회장으로 부총회장 김윤석 목사를 부회장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유영희 목사를 공동회장으로, 부총회장 강희욱 목사를 부회장으로 교계토록 각각 허락했다.

CTS제주방송 '개국 8주년 감사예배' 개최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미디어 선교사역 천명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은 지난 16일 서귀포시 새달동 제주 중문교회(위원장 오공익) 비전채플에서 제주방송 운영이사 와 위원, 지역교계 목회자 및 후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TS 제주방송 개국8주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만찬 2부 감사 예배와 3부 운영이사 위촉 및 사업보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CTS제주방송 운영이사 박동국 목사(서귀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운영이사 이정우 목사(시온교회) 기도, 서귀포시운영위원장 정용남 장로(제주중문교회) 성경봉독, 이사장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회) 설교, 찬양하는 목 자들의 특별찬양, 권 건 목사(예장 통합제주노회 공로목사)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은혜입니다 (마가 5:3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CTS제주방송 오공익 이사장은 "CTS제주방송의 지난 8년의 사



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있음을 고백한다"면서 "앞으로도 CTS제주방송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곳 제주에서 제 주교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제주방송은 복음방송을 통한 영성선교사역과 함께 제주내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다음세대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

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개국 8주년을 맞은 CTS제주방송은 제주지역 교계 뉴스는 물론 목회자들의 신앙에세이,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소식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주의 다음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역 등을 전개 하고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이다. CTS제주방송은 제주KCTV에서 42·76-1번(유선) 370번(디지털), SkyLife 183번, KT oile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에서 시청 할 수 있다. 제주 CTS 정영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2019년 총회교역자 부부 하계수양회 공고

주제 :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 하게 하리라(신 2:2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 노회의 단합으로 하나되자!

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교육부장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교육부서기

김관호 목사
(세광교회)

살롬!
본 교단 합동보수는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기관 개인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 일시 : 2019년 6월 3일(월)~5일(수), 2박3일
(부부함께 참석해주세요) 접수 오후 4시...
- ◎ 장소 : 청풍리조트 ☎ 043)640-7000
- ◎ 주소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 접수 : 5월 25일까지
- ◎ 회비 : 부부 16만원 1인 7만원, 보조 : 1인 5만원
- ◎ 안내 : 교육부서기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 ◎ 후원 : 수양회를 위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 ◎ 교육부장 : 정호석 목사 010)3533-0191

서 기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초청의 글 교육부장 정호석 목사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오며, 사역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불길과 회복케 하는 생명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두 빛이 초록으로 물들여져 가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애쓰시고 계시는 목양을 잠시 놓으시고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안식을 가지 고자 하기수양회를 개최하여 여러분을 정중히 초 청합니다.

오셔서 아름다운 목양의 이야기도 나누시고 총회 의 나갈 방향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대화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동역자 여러분의 가 정과 교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가산동 동천교회)
h.P 010-7474-3173, ☎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 규필 목사

계시록 6장~7 장해(46)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자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난호에 이어)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바라본 스테판,

먼저 계시록 6장에서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 계시록 7장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어서 예를 들면 스테판이 돌을 맞을 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대언했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여,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하고 성령으로 대언했습니다. 스테판이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했습니다.

“자유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지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섯째 봉인을 여섯 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위의 15절에 열거한 자들입니다. 어린양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를 두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피를 흘려 영원속죄 구원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어린양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거부한 그들에게 어린양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순교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간 자는 그 진노가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강해
‘대환란을 왜 7년으로 보는가?’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정전리교회 총회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랑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들 후’는 앞의 6장에서 말씀하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섯 인들을 때는 환란이 시작해서 끝나는 7년 동안의 사건들을 계시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을 왜 7년으로 보는가? 이는 단 9:27의 ‘한 이레 언약’을 남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은 남은 한 이레, 즉 7년 환란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비밀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7년을 반으로 구분해서 전 3년 반까지의 될 일들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비밀로 인봉한 책이 개봉되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일을 총론적으로 여섯 번째 인을 때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인들이 개봉되면서 이루어질 7년 환란의 사건들을 개괄적이고 총론적으로 개탄해 된 이후가 ‘이 일들 후’입니다.

계시록 7장은 막간을 이용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다음 장인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나오고, 9장에서 다섯째·여섯째 나팔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6장의 여섯 인들의 구체적인 사건 계시입니다. 7장은 6장에서 여섯 인들을 때고 그 사이에 계시하는 중간 계시로서, 6장의 여섯 인들이 속하지 않고 8장, 9장, 16장의 일곱 나팔들의 계시에 해당 안 되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7장은 6장의 첫째 인을 개봉하기 전에 있게 될 계시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
이러한 전후맥락을 살피면서 본문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를 읽게 되면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나요? 7절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바람을 부는 네 천사, 그다음은 그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때가 되면 바람을 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지 못하게 억제시키는 네 천사를 새롭게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6장에서 계시한 7년 환란의 바람을 계시합니다. 첫째 인부터 개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환란의 바람을 붙지 못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마 24:3 이하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답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마24:32). 무화과나무 가지가 살아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 즉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3-34). 우리는 이스라엘 독립이 무화과나무가 살아난 비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인데 그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7년 환란이 시작해서 다 끝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근거로 하여 1948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는 칠십 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칠십 년으로 보는 근거는 사23:15에 ‘한 왕의 날들이 칠십 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통치자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세대를 근거로 한 칠십 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렘25:11-12에 이스라엘이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칠십 년간 바벨론 포로생활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징벌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또 시 90:10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없이 보편적 생애의 세대가 칠십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1948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인 칠십 년을 합하면 2018년이 나오고, 여기에 7년 환란의 기간을 빼면 늦어도 2011년 5월14일에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로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

다. 만일 2011년 5월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면 계6장의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5월에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무조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데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 만일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장 못합니다. 마2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의 믿음이 신뢰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15:13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연단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12:40-41에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오게 한 것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언하신 것인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땅으로 돌아가기보다 이집트에서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과 학정을 허락하셨고, 심한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착수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문제가 있어서 출애굽의 시기가 30년이 더 걸린 것입니다. 마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앙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는 열 처녀가 모두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실제로 오시겠다는 때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열 처녀가 신앙을 맞는 ‘한 밤중’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날 때쯤을 계시합니다.

‘신앙이 더디 오므로’는 주님을 신앙으로 맞이하는 신부도 확정되는 순간, 즉 순교당하는 순간을 계시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불잡게 하셨을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의의 책에 녹명되는 것이 순교자이고, 순교자로 녹명된 자들 중에 환란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환란의 바

람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땅의 사랑에서, 즉 전 세계에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을 붙지 못하게 붙잡기 위해서 새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2절에 세 번째로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하는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십사만 사천 명의 수가 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땅·바다·나무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바다·나무는 일반적인 땅·바다·나무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시한 것입니다. 일반 땅·바다·나무의 특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땅 - 우리 속에 있는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 곧 육신을 입으면 그 육신은 땅의 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만 육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순교할 자로서 있는 자는 그의 육신은 믿음으로 이미 죽어졌고 그리스도만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진 자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중심으로 서 있는 자의 상태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계12:12에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고 하신 ‘하늘들’이 바로 하늘 차원의 믿음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바다 - 죄악의 세력 아래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몸 파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세례까지 받았습니. 그 여인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직업으로 번 돈에서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면 그 교회 담임목사가 헌금 축복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몸 파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세례 받은 순간에 일했던 몸 파는 것에서 잘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 세력 아래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바다 속 같은 곳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고, 그다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사코너 -216-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정전리교회총회장/JTNTV 부이사장

(고전 15:42-44)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하심은 첫째로 ‘씩을 것으로 심겨 씨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겨지는 ‘씩을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요12:24)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심겨진 것이요, 그로 인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 제물로 심겨지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하늘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하리라.

둘째로 ‘수치로 심겨서 영광스런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지요.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걸고서 수치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힌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수치 당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요. 이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육 먹고 죄와 받고 많은 수치·수욕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 제물로 죽임 당하게 되어집니. 죽을 때 이것이 수치로 심겨진 것이요, 그 후 영광된 몸으로 일으켜지리라. 주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영광 받으신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되리라.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후13:4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신 몸으로 심자기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후 못 박히시어 그 흘려 죽음을 당했으나 이것이 약함으로 심겨진 것과 같습니.

그러나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한마디 말씀에 153마리의 큰물고기를 순식간에 잡게도 하시고, 제자들의 잘못을 갚신케 하기도 했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순간 이동하시며 활동하신 능력의 몸이시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도 약하기 짝이 없어 굵으면 죽을 수 있고 갈 맛으면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몸이지만 주님을 위해 진리 증거를 하다가 순교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육신의 타고난 몸이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혈육체의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타고난 몸이 심겨져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 즉 영체로 부활하리라. 이를 보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리니 이 땅에서는 타고난 몸을 가진 것이요, 하늘에서는 영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몸이 됨을 간함이라.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흥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수용소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삼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4, 3층(신천동)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밤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십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열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리총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계원대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담임 이경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8 |

여름에 명심할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지나호에 이어)
ii. 여름에 무엇을 명심할 것인가?
1) 여름에 명심할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것이다.

여름에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종말에 넘어지면 끝장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종말에 넘어졌다면 끝장이다. 그러므로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여름에 넘어진다는 말은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넘어졌다는 것은 믿을 생활이 중단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특히 여름철에는 나무의 잎이 청청하다. 그리고 잎이 청청한 나뭇가지는 한번 꺾어지면 그만이다. 봄에는 꺾어진 가지라 해도 접목이 가능하지만 여름에 추수를 앞둔 가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열매를 맺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가지가 한번 꺾어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비유하기도 하다. 그래서 영적 추수를 앞둔 여름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순이 나오기 전, 열매를 내지 못한 봄에는 한번 꺾어졌다해도, 불이기만 하면 그 가지는 회복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고 추수를 기다리는 여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잠시 길을 잃었을지라도, 무언인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지만, 물론 그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말세에는 용납이 안 된다. 이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끝장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한번 넘어졌다하면 회복이 힘이 든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말세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그를 일으켜 주는 자도 없다고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도 끝이 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분명히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다. 계 6:4에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고 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엄청난 권세로 서로 죽이고 또한 큰 칼도 가졌더라 고 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부일지라도 싸움을 잘한다. 목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자칫하면 물고 뜯고 싸운다. 그렇게 자주 싸우면서도 화해를

하고 밭도 같이 먹고 등대기도 속속 속삭 시원스럽게 끊어 준다. 그리고 웃음과 애교와 사랑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아직은 은혜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말세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화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화해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가 없다고 말한다. 부부가 서로 화해가 없고 이혼으로 끝장을 본다든 것이다. 그 이유는?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할 때가 온다.

여러분! 평화를 누가 주는가? 물론 예수께서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요 15:6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셨다. 이는 정의이다. 이것은 절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이미 끝장이다.

다시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다."고 하셨다. 거듭 말씀드리면 나뭇가지가 한번 꺾어지면 끝장인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지게 되면 끝장이다. 결론은 불 속에 던져지는 일밖에 없다.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다같이 (롬 11:17~22절) 11절에서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고"(꺾어진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고 들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리에 서, 지옥 불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은혜시대가 있는가? 또한 이방인의 시대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기남 목사
편집인

원 가진 이스라엘이 꺾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 가진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을 가망은 없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롬 8:7~13절 은혜 시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이점을 로마서 11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가 꺾어졌다는 말씀이다.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저 이스라엘은 지금 넘어져 있다. 꺾어져 있다. 축복권과 장자권이 유대 나라와 백성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저 이스라엘은 아주 억울하기 이를 때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롬 11장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서 이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이제 저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넘어진다고 했으니,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공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다. 롬 11: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간 길을 어찌 찾아 내리요? 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넘어지거나 시험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끝장이다.

마 26:41=?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라고 하시더라. 고 하셨다. 여기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다. 개혁 성경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라고 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정확한 번역이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tv.kr http://cpj.kr)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사정의 5단계 -30-

교회 본질(구원)에 대한 예언

(지나호에 이어)
3. 번제단과 예수
구원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의 점점 : 겔 47:1~12, 계 11:1~2)

늦쇠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뿔뿔을 상징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다. 성막 제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성령의 불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죄 없다!' 칭함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겿세마네 동산 위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려고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운몽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의 겿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기름 짜듯 다 흘리셨다. 이는 우리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모두 사함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물두멍과 예수

물두멍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인 성소로 들어가기 전, 죄를 씻는 의미로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단계이다. 물두멍 단계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뜻한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기에 시공을 초월하셨으며(요 20:19), 40여 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5. 성소와 예수

여기서 성소는 하늘나라를 뜻한다. 이 성소에는 삼상위의 성품을 상징하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다. 떡상은 성부 하나님을, 금촛대는 성령님을, 분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떡상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을 매일 새것으로 진설해 놓았는데, 이 떡은 매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또 제사장들은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

일 새 기름을 갈아 넣어야 했는데 이 금촛대는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을 상징한다. 또 분향단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타올라 하나님이 흠향하실 수 있도록 매일 향을 피웠는데, 이 분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6. 지성소와 예수

지성소는 법계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으로, 천국의 백보좌를 예표하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백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에 대한 예표였음을 볼 수 있다.

1)보혜사 성령님의 실상 2)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3)성령님과 대화하라 4)실상(實狀: Actual) 기도를 하라 5)실상 기도와 허상 기도 6)실상 기도 방법.

1)보혜사 성령님의 실상

성령은 숨, 물, 불, 바람, 기름 등의 비유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비가시적물체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 한하여 눈으로도 보이며, 육체적으로도 감지되기도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또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담 또한 압락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기도 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인 영적 실체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실체로 부활하시어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과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도 만나 함께 걸었으며, 벽을 드나드시며, 제자들과 식사도 함께 하였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조차 만져보고 확인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몸 자체가 영체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해 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3-4)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활동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셨다? 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실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죽었어도 영체로 변화되어 '너희와 만나듯이 내가 다시 영으로 오셨으니 너희도 성령을 받드시 받아 영적으로 나와 함께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의 실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뒤 쫓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2-23)

2. 형상을 가지신 성령님

예수님은 내적인 면(정신)과 외적인 면(육신)에 있어서 모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보라', 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믿으라'(요 14:9, 11)는 등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몇 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였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시공을 초월, 벽을 뚫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드시며,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일 등등을 살펴볼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과 신으로서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셨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tv.kr http://cpj.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觀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흥성군 흥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한교총, 한국호스피스협회와 MOU

전인적 돌봄과 영혼구원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자와 가족을 집인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에 협력하며 참여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멈출 수 없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국호스피스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한교총에서 이승희 목사(공동대표회장, 예정합동 총회장), 박종철 목사(공동대표회장, 기침 총회장)와 한국호스피스협회 김환근 목사(대표회장)가 서명했으며 실무진들이 배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잔여수명이 6개월 전후로 예측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전인적, 신앙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에 상호 협력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참여하는 길을 확장하였다.

이승희 목사는 "약한자를 먼저 찾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호스피스 사역에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했으며 박종철 목사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평안과 영혼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말했다고, 이에 대해 김환근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과 업무 협약을 맺고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된다. 지속적으로 잘

은 결과를 한교총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내 주요 30개 교단이 참여한 한교총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호스피스사역에 적극

적으로 나섬에 따라 전국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사역이 큰 활로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교총은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 역량을 극대화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제4회 태백 성시화 여름 축제 개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저녁집회, 함백산 정상 기도회, 명사초청특강, 글짓기 대회/그리기대회, 인형복화술전도집회, 기독교 영화상영 등 진행

태백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제4회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본부장 오대석 목사, 사무총장 최상규 목사, 후원회장 김준철 목사 그리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15일 태백순복음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성시화 여름 축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4회 태백 성시화 여름 축제'는 7월 29일 저녁집회는 안재우복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복화술 전도집회로 열린다. 안재우 소장이 인도하는 인형을 이용한 복화술 집회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웃음과 은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낮에는 함백산 정상에서 조국과 태백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강사는 함백산을 오르내리며 산기도를 해온 백장근 목사(태백예안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둘째 날 저녁집회는 태백 예수원에서 20년 간 공동체 생활을 하고 두나미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요셉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31일 오전 황지교회(담임목사 김종언 목사)에서 열리는 '명사초청특강'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평화한국 대표로 있는 허문영 박사(할렐루야교회)가 '복음통일과 영성대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세계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운동을 도전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에서 초중고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글짓기대회와 사생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를 위해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교육청, 태백문인협회와 태백미술협회 등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셋째날 저녁집회는 이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명현 목사(기하성 부총회장, 이천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다음날인 8월 1일에는 환선동굴, 예수원, 검룡소 등 태백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태백시 콜시네마 오대석 목사와 김철영 목사는 15

일 오후 태백시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들과 기독교 영화 상영과 백일장대회 등의 협의를 했다.

이어 류태호 시장을 만나서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에 대한 관심과 명사초청 특강 때 축사를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독교 출산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전국에서 참가해 왔다. 올해는 경기도 이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축제 참가를 결의했다.

태백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오대석 목사는 "전국과 해외에서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에 오셔서 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이는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없는 비정상으로 치달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유명 모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하였다. 신학대의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신학교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하여 생활하게 된다.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

속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그런데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잠으로 어찌구무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음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괴상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 (헌법 31조)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기

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에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야 한다. 대학은 학생 본인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이 신학대학에도 비기독교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있는데, 이런

처럼 빌미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에 대하여 종합대학이 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경건하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신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신학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至難)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삼시간의 일이 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야 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계(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21C 교회가 직면한 '교회의 세속화'

틴데일국제대학교 총장 프랭크 스미스 박사 초청 특강



▲ 틴데일국제대학교 이사장 지창수 박사와 총장 프랭크 스미스 박사(오른쪽).

틴데일국제대학교(이사장 지창수 박사) 총장 프랭크 스미스 박사 특강인 "교회의 세속화"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동부장로교회(담임 김경오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스미스 박사는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이슈인 '창조, 성, 위생'에 대해 강의했다.

스미스 박사는 강의를 통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오하고 영감으로 씌어진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19년 2인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찬양예배(일) 저녁 7시30분
금요일아예배(금) 저녁9시
오후 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30분
주소: 전남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주일 3부예배(일) 오전 11시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새벽기도회 새벽 5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성회(고후4:15)
김평호 목사 부흥 사역 일정

열두광주리기도원 춘천에서 세종시로 이전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김 평 호 목사
•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 신한목자부흥사회 회장
• 호산나 부흥사회 중재

• 김평호 목사 부흥회 사역지 일정 •

4.1- 4.4 대구 생명빛교회	5.6- 5.9 인천 평강기도원
4.8- 4.11 열두광주리기도원 (영성대 목사 초청) (상택기도원권세마나)	5.13- 5.16 대구 열방기도원 열두광주리 (노베드 목사, 초청)
4.1- 4.20 콜리본 빛 산타폴로 (민음교회)	5.27- 5.29 총회 수양회
4.22- 4.25 서울 빛빛중앙교회 (새계민교회)	6.3- 6.6 대구 불 능력기도원
4.29- 5.2 아산 영광기도원	6.10- 6.13 포천 초림산기도원
	6.17- 6.20 대구 주 왕기기도원
	6.24- 6.27 대구 평강기도원

☎ 2019년 상반기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열두광주리기도원
세종시 연서면 도산고북로 438
김평호 목사 010-8411-0191

피종진 목사 초청 6월 국내·외 성회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피종진 목사

2(주) 저녁 안산 예정교회(이목화 목사) ☎ 010-9168-0190
주최: 21C지구순복음회부흥협의회(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총재 한요한 목사, 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3(월)~7(금) 필리핀(Philippines) 세부 부흥협의회 해외 MT & 원주민선교
주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준비위원장 전태식 목사)

8(토)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 010-9260-1091
8(토) 오후 서울 세계열방교회(이대성 목사) ☎ 010-7711-4203
9(주) 저녁 대전 주안정로교회(전정순 목사) ☎ 010-7291-3377
10(월)~12(수)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14(금) 저녁 대전 하늘물결교회(박찬문 목사) ☎ 010-2306-7870
15(토)~16(주) 서울 목양비전교회(전정열 목사) ☎ 010-3268-7253
17(월)~18(화) 한국기독교영성회(대표회장 강홍규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제주도 영성수련회 ☎ 010-7291-0291

19(수) 청평 강남침례교회(원정원 목사) ☎(031)584-1001
20(목) 오전 전국 사모세미나, 남양주 예정교회 다산선전 ☎(02)2207-8504
주최: 사모신선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부천 초대교회(정요셉 목사) ☎ 010-3906-9090

20(목)~21(금) 제219차 해외성회(219th Overseas Assembly)
27(목) 미국(U.S.A) 라스베이거스 불문교회(노은철 목사) ☎(702)628-4621
28(금)~29(토) 미국(U.S.A) LA 평화교회(김은복 목사) ☎(213)251-9191
30(주) 오전 미국(U.S.A) 알버틴 광주교회(방익수 목사) ☎(949)232-7333
30(주)~7(수) 미국(U.S.A) LA 주님의사랑교회(서시라 목사) ☎(213)305-0000

이사야 1장 강해 -2- A Study on the Book of Isaiah

김성립 목사
제자신학원



(지난호 이어서)

5) 말기 사역 (B.C. 705-701)

사르곤 2세의 죽음(B.C. 705년)은 앗수르 세력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39장을 보면 바벨론 왕 브르다발라단이 대사들을 보내는데, 이 사건의 구조와 배경을 보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 대사 일행은 B.C. 703년경에 왔음이 분명한데, 이때 히스기야는 앗수르와 대항하는 동맹체에 가담하려 했고, 이사야는 여전히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맺으려는 동맹을 사망과 음부와 맺는 계약(참조, 사 28:15)이라고 지적하였고, 애굽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였다(참조, 사 30:1-5; 31장).

그러나 히스기야는 반 앗수르 동맹국들과 연합하였고,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바벨론의 브르다발라단을 대파하고 급속히 블레셋의 도성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다급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산헤립 왕의 원형 석주에서는 블레셋 다섯 성읍 중 하나인 예그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 파디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 넘겼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를 새장 안의 새처럼 가두었다고 하였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려 갔을 때, 이사야는 산헤립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리라고 선언하면서 예루살렘 고수를 확인하였다(참조, 왕하 19:34; 사 37:35). 한편 이 일을 끝으로 그의 공적 사역은 끝을 맺는데, 그의 최후가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단지 빈 통나무 안에서 톱에 잘려 죽었다고만 전해진다.

2 신학 사상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서들 중에서도 그 저술 분량이 월등하게 많고 활동한 사역기간도 길다. 그는 시인이면서도 행동하는

실천가였고 정확한 판단력을 소지한 정치인이었다. 그의 소명과 활동에는 항상 자발적인 동기들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모든 사생활과 공생활들이 늘 헌신적이었다. 그는 당시 관리들의 위선과 탐욕, 부조리를 공박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것을 골간으로 한 이사야서의 신학 사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일신 사상

이사야는 그의 저서에서 시종 여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역설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6).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시기에 그분은 온 땅에 영광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여호와 외에는 그 모두가 우상이며,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참조, 사 37:19; 시 115:4)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참조, 사 2:8, 18, 20-21)이라 한다. 또 이사야는 역사의 과정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앗수르인들이 비록 난공불락의 나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손에 쥐어진 채찍이요,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 자고 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참조, 사 10:5-19).

(2) 여호와의 거룩하심

거룩이란 말은 하나의 추상 명사인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이다. 셀족의 모든 신들이 '거룩하다'는 말로 총칭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실제로 아카디아와 가나안 종교에서는 성전의 창녀들을 '거룩한 여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차원에서이다. 이사야가 경험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장엄한 영광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였다.

'스랍들은...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참조, 사 6:2, 3). 이렇게 삼창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상급의 경우를 이룰 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에는 도덕성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그렇다고 도덕(윤리)적인 완전무결함이 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와 거룩함이란 두려움(경외함)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의 도덕성은 초월적 존귀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신 도덕적인 순수성이 그의 초월적인 존귀성과 결합된 성질인 것이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12회나 언급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여호와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인간의 죄와 여호와의 심판

'화로다 나의 땅하게 되었고 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참조, 사 6:5).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된다. 죄라는 것은 더러움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참조, 사 1:2). 당시에 유다는 전 사회가 죄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도 별 효험이 없었고 다시 극심한 죄로 악화 일로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참조, 사 1:4-6; 1:11-15). 그리하여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의 감각적인 생활태도, 자만, 교만, 부조리가 벗어난 어쩔 수 없는 귀결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말하고 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참조, 암 5:18-20)을 선포했으며, 이사야는 이 심판의 날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산 시키고 있다(참조, 사 2:6-22).

(다음호에 계속...)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2)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은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지난호 이어서)

더욱이나 심을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서도, 바른 신학의 정립에 따라 신비로운 현상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성운동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른 신학적 통찰이 없는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운동들은 오히려 영성적 삶이 아닌 또 하나의 환원주의에 물들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빈야드 운동이나, 성령 신유 집회라든지,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찬양집회들이 바로 이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영성운동의 토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존재 목적, 타락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 등의 확고한 신학적 토대 없이 시도되는 모든 영성운동은 시대에 따라 변동되는 운동에 그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영성적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치는 '사도영성 신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령의 신학적 통찰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체계화하는 사도영성 신학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사도영성 신학의 역사

영성 신학은 중세 스콜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학과 영성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스콜라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기독교 경험으로서의 영성의 주제를 그의역작인 '신학대전'(SummaTheologiae)에서 '윤리신학'(moral theology)이라는 분야에 예속시킴으로 비로소 영성이 신학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도 기독교 신학을 이론과 실천적인 영역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누어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론적인 영역의 신

학을 '교리 신학'(dogmatic theology)이라 했고, 실천적인 영역을 '윤리신학'(moral theology)이라 했다. 개신교에서는 전자를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이라고 불렀고, 후자를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라고 불렀다.

'교리신학'이나 '조직신학'은 고백적인 서술, 즉 '무엇을 믿느냐?'를 다루는 영역이고, '윤리신학'이나 '기독교 윤리'는 교리적인 고백의 의미를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를 다루는 영역이다. 여기서 '기독교 영성'의 자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기독교 윤리'에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다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라는 문자 그대로 윤리적인 질문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독교적인 삶, 즉 영적인 체험들을 기독교 윤리에서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7세기 로마 카톨릭에서는 윤리신학을 '수덕신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학'(ascetical theology)과 '신비신학'(mystical theology)으로 더욱 세분된다. '수덕신학'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비신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룬다.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서로가 서로의 길을 열어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영성'이란 점차적으로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말로 발전되어 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성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으로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영성'(spirituality)이라 했고, 방법론을 도입하거나 여타 다른 영역의 학문을 도입하여 영성적인 체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영성 신학'(spirituality theology)이라 했다.

(다음호에 계속...)

| 마약 범죄와의 전쟁(6)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 이어서)

스테로이드 사용의 법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

허가증을 갖고 있는 의사에 의해 처방된 것이 아닌 모든 스테로이드 사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스테로이드가 근육강화를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힘줄과 인대는 더 강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은 부상으로 연결되고 고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 그런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이기기 위해 다른 불법, 중독성이 있는 마약들을 사용하게 된다. 남용자들은 주사나 알약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감염 되었다면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NAGO
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근대사적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의 역사를 보면 광해군 3년(1611년)이전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중국의 경우 19세기 중기 이후 청나라는 구미 각국으로부터의 아편 소비지역이었고 아

편의 침투로 그 범죄가 심각해져 청나라 당국에서는 아편수입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1840년~1842년 아편전쟁이 일어나 청나라가 패하면서 아편은 중국 전체에게 파고 들어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당시 청나라에 드나들던 조선의 관리들이 마약의 폐해를 잘 알아 신의주에 검문소를 두고 아편의 유입을 철저히 막았으나,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아편의 생산을 권장하며 식민통치 시기를 거쳐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계속 확산되었다.

마약류 범죄사 향정신성 의약품

1960년대 성행했던 마약법에 의한 당시 정부에서 5대 사회악으로 규정, 강력한 단속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마약사용자는 시중 약국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

하고 구입이 용이한 수면제류 또는 해열 진통제, 신경안정제 등으로 전환 사용케 되었으나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던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 등장 부산지역을 제조지역으로 형성 초기에는 일본으로 수출되다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을 전후하여 저국적으로 히로뽕이 공급되어 현재까지 총기와 더불어 사회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히로뽕(메스암페타민) 사범은 죽음의 백색가루로 불리워질 만큼 국민들에게 피해가 크고 퇴치 또한 어렵다. 특히 인접국가에서 제조나 생산이 되면 어느 한나라의 퇴치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안보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018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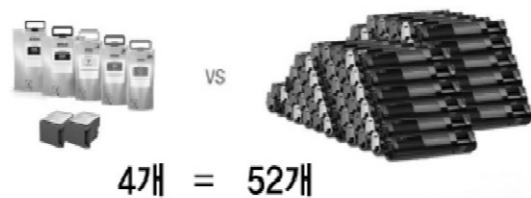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250매)
(550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TEL. 1588-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 ... 예하성 '제68차 정기총회'

"성경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차별금지법 반대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요 17:17)라는 주제로 열려 국가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 안보와 핵폐기, 하나님의 뜻에 의한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등록접수를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앞서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

바른 복음전파 총회원 '한 마음'

었다. 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선배 회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총회원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여 주셔서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 함께해 주고 또 기도도 후원해 주신 회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대표기도, 선교위원장 삼용재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녹 6:43-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성직자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나 무신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관과 목회관,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서 사역

하는 교단,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교단에 속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써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김용덕 목사(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전직 부총회장)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임용재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임용재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원기설 목사와 총무 신재영 목사, 서기 이경진 목사, 재무 이은승 목사, 회계 조병희 목사는 총회장 임용재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윤필중, 박정자, 이규호, 주덕영, 왕수 없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성직자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나 무신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관과 목회관,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서 사역

이어서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7차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등이 통과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게 정인성 목사, 부총회장에게 정인성 목사, 총무에 이경진 목사, 서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써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며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신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68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68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68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11주년을 맞으며 교단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목회자 재교육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고,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종교인권에 대한 바른 대처, 6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MBC의 정치 공작, 부끄러워해야 한다

불법으로 교회에 침입한 것 사과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MBC 방송이 탐사 기획으로 방영했던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20일 밤 8시 때에 방송된 '예수님은 기호 2번? 선거법 비웃는 정치 교회'편이 방영되었다. 이는 필시 야당의 당 대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MBC는 방송의 막대한 권력을 발휘하여,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등장시키고, 그의 발언을 부각시켜 황교안 야당 대표와 연관을 시켜,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이 현저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광훈 목사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방송이 이런 기획물을 내보내면서,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MBC 기자는 교회의 허락이나 협조 요청도 없이, 지난 5월 5일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전 목사의 발언을 불법적으로 녹음하였고, 또 전 목사가 발언한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보도가 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19일에는 교회에 무단으로 찾아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까지 했다고 한다. 이날 11시, 주일 예배를 인도하던 강단에 올라가는 전 목사의 앞을 기자들이 무례하게 가로막

고 불법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000여 명의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예배를 방해한 행위이다.

또 전 목사와 황 대표 사이의 정치적 연관성을 억지로 지으려는 인터뷰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전 목사와 황 대표 사이에 어떤 사적인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전 목사는 분명히 자신은 장관을 하거나 직접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여 정치를 통해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의 정치 주권적 판단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탱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아무리 MBC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정권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정권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전 정권러 강단에 올라가는 전 목사의 앞을 기자들이 무례하게 가로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공영방송인 MBC가 아무리 야당 대표와 목회자를 연관시켜 기독교에 흡집을 퍼트리고 하여도, 정권 하수인의 소수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정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야당 대표와 기독교를 이간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충분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다. 이런 때 언론/방송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국민 통합 역할이 아니었는가?

공영방송 MBC는 지엽적이고, 편파적이며, 선정적인 방송을 위하여 방송 취재의 기본부터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정치 공작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찾아가기 바란다.

서울남부구치소, 고척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및 시설참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오홍균)는 이날 고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및 시설참관을 실시하였다.

비해야 할 것, 교도관이란 직업을 통해 얻는 보람과 어려움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평소 방송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수용동 및 작업장 등을 둘러보면서 수형자들의 반성과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 그리고 법 집행의 엄정함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오홍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됐길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체험을 위해 시설참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6월 이사회 공지

이사장 총재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장	사장 소진우 목사 명예총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상임대표	명예이사장 정기환 목사 자문	명예이사장 이영풍 목사 자문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 명예총재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 명예총재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 부총재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 부총재	수석상임이사 오중설 목사 부총재	부사장 김창동 목사 부총재	부사장 박수영 목사 수석상임회장	부사장 박동훈 목사 상임회장	부사장 강요셉 목사 부총재	부사장 곽영민 목사 대표회장		
자문 최순길 목사 고문	자문 이홍희 목사 연수회장	자문 이홍규 목사 고문	상임이사 백운성 목사 총무국장	상임이사 최나현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이기한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홍형표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서명범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곽국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신연창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임요한 목사 사회부부장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 상임회장	상임이사 유순욱 목사 실무회장	상임이사 김선우 목사 실무회장	상임이사 김부경 목사 회계	운영이사 박영미 목사 실무회장	운영이사 이준영 목사 웨신총무

2019년 6월 21일 (금) 오전 11시 이사회 · 부흥사회 일정 장소 안내

- 일시 : 2019.6.21.(금)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본부 5층 비전센터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7길25, 6층(호용빌딩) ☎02)2608-2190, H.P 010-5468-6574
- 찾아오시는 길 : 전철5호선 까치산역 4번 출구 좌측 50m 직진 사거리에서 강서평원앞 호용빌딩 6층
- 자가용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오세요. 오셔서 많은 기도와 격려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참고 : 만약 장소가 변경되면 공문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2019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마음이 분이 있을 때

성경: 사무엘상 1:10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나나 그를 격분하게 하였고 한나는 심히 괴로웠습니다(삼상1:6).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와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사도 그 머리대 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를 드렸더니 다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니 5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목: 예배를 더 사모하라

성경: 사무엘상 2:17 찬송가 559장

영적 타락이 성적 타락이 됩니다. 처음부터 죄를 작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예배를 멸시하더니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삼상2:25).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도 자녀를 믿음으로 훈계하며 유혹과 욕심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군사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은총을 더욱 받은 자녀로

성경: 사무엘상 2:26 찬송가 563장

엘리는 일생동안 제사장직이었고 두 아들 훌리와 비스하스도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 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에게 은총을 받았습니 다. 한 가문은 몰락하고 한 가문은 세움을 받았 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직분이 장로, 권사, 교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요? 신앙의 가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출구가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 습 걸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 진정한 간증 1

성경: 시편 23:1-6 찬송가 380장

시편 23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시23:1).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지금 내가 처해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잘 되었었던 이야기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형 간증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현재형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진정한 간증 2

성경: 시편 23:1-23 찬송가 325장

문제와 상황만을 볼 땐 전혀 기도 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령이 되시고 나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간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비록 가난에 찌들어 사방팔방 막혀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간증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행형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부메랑 효과

성경: 마태복음 7:1-5 찬송가 410장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 그 의미가 강해서 정죄한다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비판 의미의 수준을 넘어 정죄하고 저주하는 등의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덮어주십시오. 내가 남을 축복 할 때 축복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되는 나라, 가정, 교

회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오며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비판은 인격을 파괴시킨다는 점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고상해보일 수는 있어도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려운 것인 만큼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십시오.

제목: 세상에서 천국 사람으로 살기

성경: 마태복음 10:16 찬송가 350장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직 썩자어 전 도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라는 말은 잡아먹힐 것 같은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며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꼬드겨 넘어뜨려 할지라도 지혜롭게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면역력을 높여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목: 참 삶이 있는 삶

성경: 마태복음 11:28-30 찬송가 407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얻으리니”(마11:29). 너희 짐이 수고롭고 무거운 이유는 너희 마음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쉽게 지고 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이 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내 마음을 다하라

성경: 마가복음 12:28-30 찬송가 218장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가야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으로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성경: 마가복음 12:31-34 찬송가 314장

참 목자 참 양은②(요10:1~15절)

편집인 정기념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목자 참 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본문에서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창 29:2).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다. 즉 세속적인 목회자와 영적인 목회자가 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세속적인 목회자고 교회 신자들도 세속적인 목회자다. 영적인 목회자라면 그 교회 신자들도 영적인 신자들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목회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삶도 신앙도 좌우된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닮아가기 마련이다. 그 땅 차원의 신앙인지 영적인 하늘 차원의 신앙인지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 행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고 물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

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행 19:2)고 했다. 에베소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목회자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명성이 높았다. 아볼로는 학문이 깊었으며, 성경에도 능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있었다. (행 18:24~25). 그렇지만 아볼로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족했다. 그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성령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다.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아볼로 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는 지식적이고, 교육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만 했을 뿐이지 영혼 살리는 영적 차원의 설교는 아니다. 아볼로는 한 번도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경은 세상 학문으로 풀고 세상 학

문적으로 성경의 박사가 된들 세상 학문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영혼 구원은 없다.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고상한 지식도 도덕 윤리도 필요하겠지만 고상한 지식 도덕 윤리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이 없는 신자라면, 그가 훌륭한 지성적인 교인이나 도덕적인 훌륭한 사회인은 될지 몰라도, 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그저 땅 차원의 사람, 육적 차원의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다. 양 떼를 살리는 목회자인지 아니면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장사꾼 목회자, 굶곤 목회자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참된 사명 자요, 참된 목사라면 사랑하는 양떼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할 것은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세에 성도들이 어떠한 목회자를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는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어집니다.

소진우 목사 2017년-2019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7년 9월	2018년 1월	2018년 5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19년 5월
4-8 은누리복음회협의회수련회(합교총회)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향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환 목사)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은천교회(소치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영민 목사)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9-1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3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 안양강일산기도원(이예제 원장) 7-10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14 오산리(금사기)도원(김경환 원장) 16-24 미주지역 부흥회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4 다·열교교회(김명수 목사) 8-10 독성교회 (유중수 목사) 12 오산리(금사기)도원(김경환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7 정기노회 18-19 성사기도원(박정원 원장) 21-25 은천교회(소치영 목사) 26 양평금기도원 29-2 선교연합교회	1-3 강기동부흥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3 한일산기도원(이영관 원장) 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9 주영광교회(김진관 목사) 14-17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21-23 평강교회(김장규 목사) 28-1 선교지방문	6-8 천향성교회(하물 목사) 13-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동광교회(이영철 목사) 27-29 풍성교회(윤정희 목사)
2017년 10월	2018년 2월	6월 7일은 안식일	2018년 8월	2018년 11월	2019년 2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5-8 감란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우수 목사) 26-28 삼곡교회(조민희 목사)		3 한일산기도원(이영관 원장) 6-8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원장) 9-10 행복으로 가는교회(최석규 목사) 13-16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3 김림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7-30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 행복이넘치는교회(이영관 목사) 8 안양강일산기도원(이예제 원장) 12-14 영광교회(송성준 목사) 15 보라비전교회(구경모 목사) 19-21 경원교회(김대중 목사) 26-28 제천예복교회(김대중 목사)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7 감란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1-14 임아니열교교회(황철진 목사) 17-20 부아기독교연합성회(회장 신간제 목사) 26-27 보라비전교회(구경모 목사)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9월	2018년 12월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19년 6월
5-8 주안중앙교회(박승준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1일 안양강일산기도원(이예제 원장) 4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 문정서교회(홍성근 목사) 10-13 교단총회 13 평화의 동산(피준진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준 목사) 24-28 선교연합교회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5 삼릉교회(고정익 목사)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6-21 본교회부흥회 25-29 송구영생을 위한 찬양기도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3-5 천성교회(이원정 목사) 9-13 본교회부흥회 17-26 미주성회 27-28 새성연합성회(내(정복근 회장)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3-5 천성교회(이원정 목사) 9-13 본교회부흥회 17-26 미주성회 27-28 새성연합성회(내(정복근 회장)
2017년 12월	2018년 4월	2019년 7월	2019년 4월	2019년 8월	
4-6 삼릉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생을 위한 찬양기도	1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일-4일 광명성결교회(조재웅 목사) 9일-11일 산동교회(한상길 목사) 16일-26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9일-5월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7월1-3 모리교회(조석희 목사) 4 평화의동산(피준진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다·열교회(김명수 목사) 15-19 선교사신학교(여를세미나) 21-27 특별심방(도회(본교회)) 29-1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1-3 사랑교회(김성준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본교회(김대중 목사) 15-18 산동교회(한상길 목사) 22-23 정기노회 24-25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8 희망교회(정복근 목사) 29-1 삼성교회(김규명 목사)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남부연합성회 12-22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감란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제3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교계에서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제3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여의도 63빌딩 2층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교계에서는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비롯, 중경대표회장 안신형 목사, 김자연 목사, 지 덕 목사, 이용규 목사 등 자리를 함께했다.

주제 강의에는 먼저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준근 박사가 했으며, 이박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중북좌파,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강대국 등,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등 4대 기둥위에 세워 뒷받침했던 한미동맹이 위협한 상태에 왔음을 전제로 국가의 안보측면에서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즉 이북이나 중국의 영향력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역주 목사는 기독교 언론의 한국교회 파괴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 목사는 “현재 기독교계 언론이 교회를 박해하는 왜곡 거짓 뉴스를 만들어 반기독교적 거짓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CBS, 뉴스엔조이 등의 보도행태는 대형교회나 중요단체를 해체 시킬 목적이 있지만 않은지 의심할 지경

없다”고 안도했다.



이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왜곡하는 중북좌파들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에 대하여”를 강의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한민국 정통적 역사를 왜곡시키고 부정하며, 심지어 이를 교과서에 수록 교육시키고 있어, 중북좌파 집단들임을 확증할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송영선 전 의원은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의했다. 송 전 의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 설명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에 대해서 정교분리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법으로 교회가 정

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주제강의 마지막 순서로 ‘4대강 보 해체 반대’에 대하여는 이제오 장로(전 특임장관)가 했다. 이 전 장관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중요성과 그동안 홍수나 가뭄에 획기적인 피해를 줄이고 이롭게 작용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4대강보는 해체되어서는 농민들의 큰 반감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다행이도 이 4대강보’를 해체를 위한, 3차례 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가 전혀

없다”고 안도했다. 또한 이날 고영일 변호사(기독교자유당 대표)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 전하기를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임을 상기, 내년 총선 땀 기독교자유당이 전국 비례의석으로, 6석을 목표로한 75만 표를 뛰어넘어, 125만 표를 얻는다면 개헌 발의할 수 있는 10석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 258만 표를 얻는다면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주제강의에 앞서 드러진 1부 예배에는 중경대표회장 안신형 목사의 대표기도, 중경대표회장 김자연 목사가 축사를, 중경대표회장 지 덕 목사가 축하했다. 2부 한기총 설립 취지에 관하여 특강한 중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해방 후 NCC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세워졌고, 1988년도에 NCC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며, 기독교 단체는 공산주의 반대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의를 하자 당시 한경직 목사와 김준근 목사는 한국교회가 99%가 보수임에도 진보와 좌파단체인 NCC가 한국교회 정체를 농단하자 거기에 대해 1989년 한기총이 세워진 주요 역사적 의미”를 소상히 증명했다.

“2019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원로목회자들이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하여' 분단의 현장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최근 해마다 열리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평화통일 특별기도회가 올해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440여 명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9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주님, 얼어붙은 한반도에 화해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성기도가 진행되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과 한국원로목회자교회,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대구 방주사교회의 후원과 한국기독교인문재단이 협찬했다. 이번 임진각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졌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이날 행사순서를 진행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명예이사장 림인식 목사는 “임진각에서의 특별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모음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복음이 심어질 것이라

는 가슴벅찬 기대를 해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교를 맡은 김상복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고문)는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로목회자들이 모여 가진 기도회는 의미 크다고 본다. 이날 “기도회를 통해 올바른 평화관과 역사관을 정립하고,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최근 우리 군의 경계가 강화됐다는 말에 이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이날 기도회는 대회사 김신자 목사(방주사교회), 환영사 김재용 목사(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 대표회장), 격려사 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 축사 김윤기 목사(남북조찬기도회 대표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기 남북조찬기도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교회가 먼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비극의 역사의 산재인 원로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통일로 가는 초석이자 지름길임을 믿는다”고 했다.

행사를 후원한 대구 방주사교

회 김신자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평화통일을 바로 세워 주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 동포와 민족복음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있따랐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이날의 행사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와 원로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장정국 목사, 박정일 목사, 황정일 목사가 각각 특별기도로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함차게 흔들었다.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기념 촬영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인재 영동중앙교회 원로목사는 “교회가 알른 세속에서 벗어나야 통일을 주실 것 같다”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정희 서울 정금성결교회 원로목사는 “자유를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며 임진각에서 기도했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내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되게 해 달라”는 통성기도의 함성소리에 지축이 흔들린 듯 간절했다.

한편, 이번 모든 행사를 기도로 준비해온 이주태 장로(한국원로목회자재단 설립자)는 “평화의 삶을 간절히 원하면서 인간의 무지와 욕망으로 끝없는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비극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멈출 수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글/ 靑松 李明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30년전 1989년 3월 24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Korea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에 홍강의 서울대학교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부회장에 박명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기획관리관, 그리고 사무총장에 이배근 한국어린이재단 복지부장이 선임되었다.

오늘(5월 17일 금요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주최 제59회 학술세미나가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 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초대 부회장에 이어 제2회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다. 오늘 축사에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을 중

합하여 정부당국에 ‘정책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방안>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 및 지정 토론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3만4169건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여전히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 왼쪽부터 협회 고문 박명운 박사(보건학)와 회장 이배근 박사(사회복지학)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세습적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와 더불어 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虐

待)를 많이 받을 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방임(放任)을 많이 경험할 수록 청소년 학교폭력이 증가한다. 가정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사회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2019년 하계 목회자 수련회 공고

주제 : 형제가 연합하여 (시편133:1~3절)

웨신총회의 자랑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Robert S.Rapp(라보노) 박사와 김달생 박사가 1967년 서울 흑석동에 설립한 (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총회가 창립되었다. 현재는 종교 개혁을 통해 확인된 성경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의 종신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6878-1324
총회장 허창범 목사(신학박사, 교육학박사)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박정균 목사 (대전반성교회)



정순옥 목사 (미래선교회)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 일시 : 2019년 7월 1일(월)~ 3일(수) 오후 5시
- 장소 : 서천유스호스텔 www.scyh.or.kr
- 주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72-40 (구.송림리762-85,86) ☎(041)0956-0003, 총무010-6878-1324

- 문의 : 총회 02)835-2606-7 *오후 3시부터 접수...
- 대상 : 총회산하 교역자 부부(목사,담임교역자)
- 찬조 : 후원하실 분은 미리 입금부탁드립니다.
- 계좌 : 우체국 013821-01-002737(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 2019. 웨신총회 목회자수련회는 유익한 특강과 성령충만 영적충전이 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둘째날 : 각 노회별 오전과 오후 주변 관광지 투어
- 준비물 : 아웃도어, 모자, 선글라스, 워킹화 필수
- 간식, 물품, 기념품, 경품 후원하실분 환영